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82**  
JULY 30 2021

발간년월 2021년 7월 30일 (통권 제18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노릴스크 니켈, 1년 내내 북극 항로 이용한다.
- 노바텍, 'Arctic LNG 1 프로젝트' 개발 본격화
- 러 로사툼, 이온(Aeon)과 북극 물류협력 합의
- 코로나 이전 경제수준 회복한 러시아, 향후는

## 주요 통계

-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주요 동향



### 노릴스크 니켈, 1년 내내 북극항로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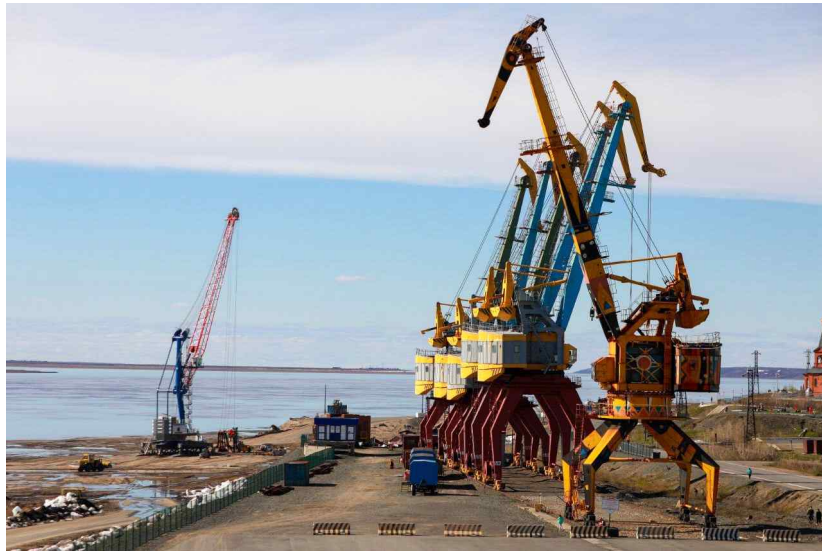
#### ■ 세계 최대 팔라듐과 고급 니켈 생산업체인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이 글로벌 니켈 수요 증가에 대비해 연중 북극항로 이용계획을 천명<sup>a)</sup>

- 통상적인 북극항로 운항 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인데, 노릴스크 니켈은 지금까지 이 기간에만 로사톰(Rosatom)의 운항 채빙서비스를 받아 왔음. 하지만 노릴스크 니켈의 북극항로 이용 확대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30년까지 연중 내내 로사톰의 북극항로 채빙 서비스를 받게 되었음
- 이뿐만 아니라 노릴스크는 현재 운항 중인 자회사 채빙선 ‘두딘카(Dudinka)’호를 대체할 디젤 및 LNG 이중추진 채빙선을 건조해 로사톰의 자회사 아톰플로트(FSUE Atomflot)와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였음
- 노릴스크 니켈은 역사적으로 북극항로를 가장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화주로 최근 생산시설 현대화, 환경지표 개선, 생산체계 혁신 등을 통해 환경파괴 기업이라는 딱지를 떼고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음

#### ■ 북극항로로 운송될 니켈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판단<sup>a)</sup>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발표한 ‘청정 에너지 전환에서 주요 광물들의 역할’이란 보고서에서 파리기후협정 목표와 일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시나리오(SDS)에서 청정 에너지 기술 발전이 광물자원의 주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음
- 특히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이차전지 필수 원료인 니켈 수요는 앞으로 41배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음
- 세계 니켈 생산 1, 2위인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전기차 수요 견조 및 철강산업 회복 등으로 전세계 니켈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두딘카항 전경



자료: <https://en.portnews.ru/news/316069/>

## ■ 노릴스크 니켈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두딘카(Dudinka) 항에 최대 3억 5000만 달러(한화 4천억)를 투자, 처리용량을 33%까지 확대 추진<sup>b)</sup>

- 두딘카 항만은 북극 연안항으로 노릴스크 니켈의 자회사인 폴라 트랜스포트(Polar Transport)가 관할하고 있으며, 노릴스크 광산에서 생산된 광물을 두딘카 항만으로 운송 후 러시아 내륙으로 운송 또는 무르만스크/아르한겔스크로 환적하여 유럽 등지로 수출함
- 두딘카 항만은 철도가 연결되어 있어 복합운송도 가능하며 벌크화물, 목재, 금속 스크랩 등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고 있음
- 노릴스크 니켈은 두딘카 항만의 화물 처리 용량을 연간 70만~1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며, 2개 해양 부두와 2개의 강 부두 건설, 크레인 5대 및 기타 처리 장비 인수를 위한 35억 루블을 포함하여 항만 인프라 확장에 최대 140억 루블을 투자하고, 최대 260억 루블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해상 화물 300만~500만 톤을 포함하여 연간 70~100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임
- 아울러 2027년까지 두딘카 항만 내 35개의 포털 크레인 교체사업에 140억 루블, 특수 항만 장비 개발과 항만 정비에 50억 루블, 2개의 해양 터미널 재건축에 25억 루블, 이동식 크레인 10기와 포털 크레인 1대 교체, 장비 및 인프라 정비, 컨테이너 선단 확보 등에 45억 루블을 투자할 예정임
- 노릴스크 니켈의 두딘카 항만 투자 및 북극항로 이용 확대로 전세계 고급 니켈 시장 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두단카 항만과 노릴스크 니켈 광산 위치



자료: 구글 검색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나성윤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 참고자료

- a) <https://www.kitco.com/news/2021-07-23/Nornickel-extends-nuclear-powered-icebreaker-support-of-its-vessels-in-the-Arctic.html>(2021.7.28. 검색)
- b)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nornickel-plans-to-invest-up-to-353-million-in-dudinka-port-upgrade/>(2021.7.28. 검색)
- c) <https://en.portnews.ru/news/316069/>(2021.7.27. 검색)

## 러 노바텍, 'Arctic LNG 1 프로젝트' 개발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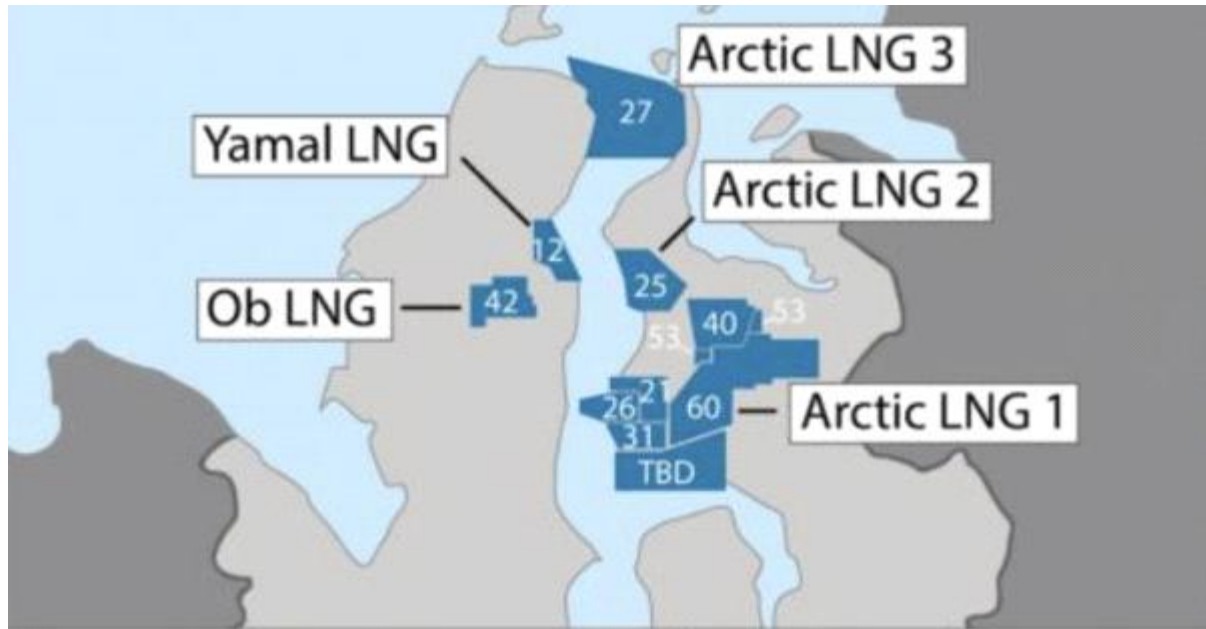
### ■ 노바텍, 기단 반도의 'Arctic LNG-1 프로젝트'의 3개 유정 입찰 착수<sup>a)</sup>

- 노바텍이 이미 개발이 한창 진행돼 막바지 건설단계에 있는 'Arctic LNG 2' 프로젝트에 이어 'Arctic LNG 1' 프로젝트도 본격 개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됨
- 노바텍은 7월 초 기단 반도의 아키모프(Achimov) 지층의 생산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탐사유정을 시추할 업체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조만간 Arctic LNG 1 프로젝트 입찰공고를 내고, 내년에 약 3,600m 깊이의 유정 개발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다소 깊은 깊이 때문에 아키모프 지층에서 시추하고 생산하는 것이 얕은 유전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러시아, 2035년까지 연간 LNG 생산량을 현재의 다섯 배에 육박하는 1억 4000만 톤으로 확대하여 세계 1위의 LNG 생산국 달성 추진

- 2030년까지 Arctic LNG 1 프로젝트의 3개 트레인이 가동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나오는 응축수는 더 높은 품질로 인해 기존 석유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 노바텍에 따르면 기단 블록의 아키모프 지층과 Arctic LNG 1 프로젝트의 다른 유전에서 가스 1m<sup>3</sup>당 최대 800g의 응축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올 1월부터 6월까지 기단 반도에서의 응축수 생산량은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5% 늘어나면서 하루 30만 배럴 이상 증가했음
- 북극지역 외에도 극동 지역과 블라디보스톡 및 발트 해 연안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의 LNG 생산능력은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임

그림. 기단반도 인근 유전개발 현황



자료: The Arctic Institute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 참고자료

- a) <https://www.upstreamonline.com/exploration/novatek-opens-tenders-for-three-more-deep-wells-on-gydan-peninsula/2-1-1043145>(2021.7.28. 검색)



# 러 로사톰, 이온(Aeon)과 북극 물류 협력 합의

그림. 로사톰과 이온(Aeon) Corp.의 계약 체결식



자료: <https://en.portnews.ru/news/316100/>

## ■ 북극 물류의 전략적 협력사업으로 시라다사이(Syradasay) 광산 석탄을 운송

- 러시아 국영 원자력 발전 기업 로사톰(Rosatom)과 이온(Aeon)이 로사톰이 주최한 ‘북극의 날’ 행사에서 북극 물류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예비 계약서를 체결함
- 이 계약에는 로사톰 자회사 아톰에네고프롬(Atomenergoprom)의 대표 키릴 코마로프(Kirill Komarov)와 이온(Aeon)의 이사장 로만 트로첸코(Roman Trotsenko)가 서명하였고, 서명을 계기로 양측은 북극 물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 이 프로젝트는 아크(Arc)-5 보다 높은 등급의 선박과 아크(Arc)-6/Icebreaker6 보다 높은 등급의 예인선을 건조하여 양측의 화물과 러시아 타이미르(Taymyr) 반도의 시라다사이(Syradasay) 탄광 석탄을 운송하기 위한 것임
- 시라다사이 탄광 개발 프로젝트는 이온(Aeon)의 자회사 세베르나야 즈베즈다(Severnaya Zvezda)가 담당할 예정임
- 로사톰은 국제적 기술 선도 기업으로, 핵 분야 역량을 극대화하여 50여 개 국가와 사업 파트너십을 맺었고, 원자력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핵연료 제조 및 공급 등 세계 핵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로사톰은 75년 동안 쌓은 전문 기술을 통해 수소 에너지, 에너지 저장, 원자력 의학, 풍력 에너지, 복합 재료, 물류 사업, 환경 솔루션 등 유망 첨단 기술 시장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총 100개 이상의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여 선도적 기술 분야 대기업들 사이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음

- 세베르나야 즈베즈다는 현재 시라다사이스코예(Syradasayskoye)에 탄광 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이 탄광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탄광 중 하나이며,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 주 타이미르 돌가노-네네츠(Taymyr Dolano-Nenets) 지구의 딕슨(Dikson)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500만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 프로젝트는 연간 1000만 톤 규모의 탄광 개발, 농축공장 건설, 예니세이(Yenisei) 신규항만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 건설 사업을 포함하며,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환경 위험과 지역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환경종합평가 결과, 러시아 북극 지역의 환경을 위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이수민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

#### 참고자료

a) <https://en.portnews.ru/news/316100/>(2021.7.28. 검색)



## 코로나 이전 경제수준 회복한 러시아, 향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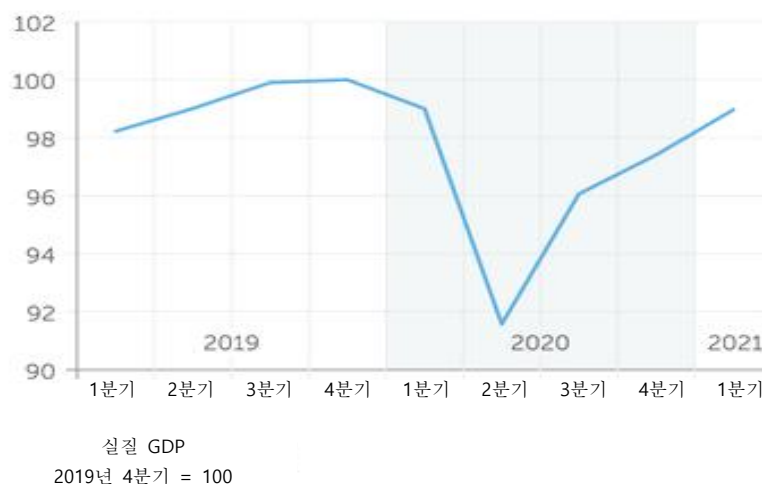
### ■ 새로운 경기 사이클로 진입한 러시아 경제, 더욱 성장할 전망<sup>a)</sup>

- 세르게이 코렌스니코프(Sergey Kolesnikov) 테크니콜(Technicol)사의 공동창업자이자 경영자는 “러시아는 새로운 경기 사이클로 진입하고 있으며, 연간 4~5%씩 성장하여 향후 5~6년 동안 매년 15~20% 건설 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그는 또 조만간 비식품 소비재, 건설 자재, 기계류, 기계 부품 산업이 경제를 이끌 것이며 해당 부문에 인플레이션 위험, 가치 절하, 망가진 물류 시스템으로 인해 국내 생산 기업에 유리하나 생산 가격 상승, 대출금리 인상으로 소비가를 인상하지 못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음

### ■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 코로나 위기 전, 경제수준 회복

- 러시아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경제는 이미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2021년 1분기 GDP와 코로나 팬데믹 2019년 4분기 이전과 차이는 약 1%로, 5월 계절 요인을 제외하면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1)

그림 1. 러시아 경제, 코로나 위기 전 최대치 수준 회복



자료: <https://expert.ru/expert/2021/29/sdelat-samim-a-ne-zhdat-konteyner/?ny>

- 드미트리 벨루소프(Dmitry Belousov)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에측센터(CMASF) 책임자는 “6월 중순, 러시아 경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실질적 고용 및

실업률과 주요 산업 총생산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했고 실질 임금과 소비, 건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 말함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1년 GDP 성장률 3~4% 전망, 경제개발통상부는 전망 성장률을 2.9%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가경제개발기관(VEB.RF)의 7월 2일자 자료에서는 여름 동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2021년 말, 4.3% 수준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고 있음

## ■ 올 2월 산업생산량, 2019년 생산량 초과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 러시아 통계청(Rosstat)의 자료에 의하면 5월 산업생산 지수(계절 및 달력 효과 제외)는 전월 대비 1.1% 증가했으며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CMASF) 자료에서는 5월 산업생산지수(계절 및 달력 효과 제외)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였음(그림 2)

그림 2. 새로운 수준의 산업



자료: 러시아 통계청,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CMASF), 러시아 국립연구경제대학

그림 3. 2021년초, 전력수요 러시아 경제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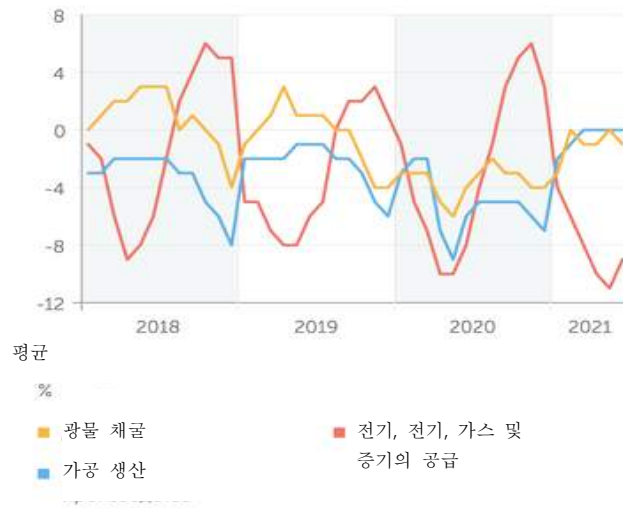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 통계청,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CMASF), 러시아 국립연구경제대학

그림 4. 양호한 운송 화물 회전율



자료: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CMASF) 가공

그림 5. 광물 채굴 및 가공기업 신뢰 지수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자료: 러시아 통계청

- 산업 생산활동의 전력 소비 및 화물 운송 회전율에 대한 간접 지표도 지속적인 회복을 보이며(그림 3, 4), 채굴산업 및 제조산업의 기업가 신뢰 지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그림 5)
- 블라디미르 살니코프(Vladimir Salnikov)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CMASF)의 부국장은 산업 생산의 통계 데이터에 따라 경제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지만, 급격한 경기 하락으로 다시 코로나 위기로 인해 경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대체로 경기는 회복되었고

2021년 2월에 2019년의 생산량을 초과했다고 언급했으며,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이 되어서야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함

- 나탈리야 추르키나(Nataliya Churkina) 종합전략연구소(ICSI)의 분석가는 2018~2019년 동안 산업 생산 성장 속도가 낮았음에도 2014년~2021년 5월까지 7년간 9.3% 성장률에 도달했다고 강조함

## ■ 의약품 및 식품 산업 성장세,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

- 광물 추출 산업 생산지수(2021년 1분기 총 GDP의 12.2%)는 2년간 0.8% 감소했으며(그림 6), 광물 추출 산업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지만 4년간 OPEC+의 압박을 받은 석유만 생산했으며 2019년보다 금속 제련 물량이 줄었음

그림 6. 2021년 1분기 비식품 제품 생산 및 공급 그래프



자료: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CMASF)

- 나탈리야 추르키나(Nataliya Churkina) 분석가는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야금분야의 2021년 5월 생산량은 2019년 5월 생산량 대비 6% 감소, 의류 생산은 1% 감소, 음료 생산은 1% 감소했으며 다수의 업종이 위기에 처해있는데, 그중 서비스 업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2021년 4월 관광 서비스 부문은 2019년 4월 대비 성장률 64% 하락, 문화부분 26% 하락, 교통 서비스 23% 하락, 호텔 서비스 19% 하락했다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 건축 자재) 생산은 2년 간 3.6%로 완만하게 성장 중이며, 최근 2개월 동안 지속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4월

-3.5%, 5월 -3.1%).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4월 기계, 장비, 차량 수입은 지난해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알렉산더 시로프(Alexander Shirov)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경제 예측 연구소 소장은 수출 지향 산업의 소득이 다른 산업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투자 상품의 생산량과 수익 규모의 불일치를 설명하며, 첨단 투자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하지만 거시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CMASF)자료에 따르면 대폭 성장한 2개 품목은 2년 동안 비식품 소비재 생산이 9.6%(연평균 약 4.7%) 증가하고 내구재 생산은 5.9%(연평균 약 2.9%) 증가함(그림 6)
- 코로나 팬데믹과 평가절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추가 가격 인상에 대한 두려움과 거주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비식품 제품 생산 및 공급은 급증함
- 발레리 미로노프(Valery Mironov) 러시아 국립연구 경제대학(HSE university)의 부국장은 2020년 투자 감소율(-1.4%)이 연간 -20.9%, -13.1%에 달해 2009년, 2005년의 최고치보다 현저히 낮고 투자 일시 중지 기간은 2분기에 그쳤지만 2009~2009년에는 투자감소가 5분 동안 지속되었으며 2014~2015년 연속으로 투자감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부터 매우 취약했던 러시아의 투자 프로세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제 구조조정을 자극하고 리쇼어링 프로세스를 강화했으며 자가격리와 전염 가능성의 증가 상황 속에서 수요가 있는 분야의 개발 계획을 증가시켰고, 농업 부분의 수출도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올가 이즈랴드노바(Olga Izryadnova) 예고르 가이다르 경제 정책 연구소 소장은 의약품과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의료용품 중간 및 최종 수요, 기계 건설 관련 산업, 화학 목재 공업, 섬유 및 의류산업의 증대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가격리, 원격근무 등의 요인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또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음
- 아울러 전력 소비 및 화물 회전율과 같은 산업의 제조 활동에 대한 간접 지표는 지속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채굴 및 제조산업의 기업 신뢰도 지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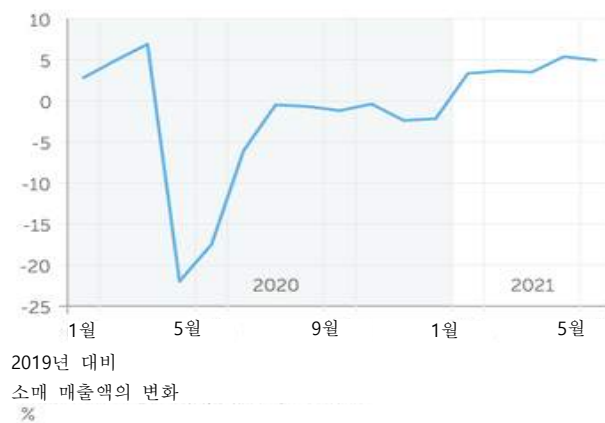
## ■ 관광시장과 케이터링 서비스 시장 등은 아직 지체된 수준

-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시민들이 격리생활로 인해 구매하지 못했던 물품들의 구매를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들은 이 수요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 현재 해외 물품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품을 러시아 제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등 러시아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데니스 크루비트소프(Denis Kryvtsov) 세미트레일러, 덤프트럭, 기타 도로 장비 생산 업체인 토나르(Tonar)社 CEO는 “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투자하고 성장할 것이며 2021년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축적된 수요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자사의 생산량이 약 5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봇 생산 과정에 대해 재차 확인 후 투자를 늘릴 것이며, 주요 문제였던 외국 공급부품 공급 문제는 관련 부품의 현지화 및 수입 대체품 마련을 통해 극복했다.” 고 밝혔다.
- 2021년 4월~5월 소매 매출액은 2019년 동기와 비교해 약 5% 높았으며(그림 7), 2021년 5월 식품의 매출 점유율은 47.1% (2020년 54.9%)였고 소비자 수요의 회복은 실질 임금의 성장과 노동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가능한 것임. 2021년 5월 총 실업률은 감소했으며 8월 경제활동 인구는 4.9%로 2020년 3월 수준인 4.7%(그림 8)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함

그림 7. 소매 제품 무역,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자료: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Expert 가공

그림 8. 실업률 감소, 임금 상승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자료: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Expert 가공



- 알렉산더 시로프(Alexander Shirov)는 최근 소비자 수요 증가 추세가 몇 가지 핵심 요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팬데믹에서 벗어난 후 억제되었던 수요와 생산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생산량 증대, 해외여행 제한으로 인한 국내 추가 수요 창출이라고 언급함
- 블라디미르 베소노프(Vladimir Bessonov) 고등 경제대학 개발연구소의 산업 및 무역 부서장은 “2020년 아웃바운드 관광 부족으로 인해 관광뿐만 아니라 케이터링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서비스가 아닌 재화에 대한 소비로 재분배가 이뤄져 확보된 자금은 소비자 시장과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사업이 앞으로도 발전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식품 산업은 내수 위주로 제공되기 때문에 무한 성장은 불가능하며 섬유 산업 부문은 아직 수입 대체와 추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종이, 화학물질, 플라스틱 생산은 국내외에서 생산할 수 있고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함
- 세르게이 콜레스니코프(Sergey Kolesnikov)는 “제품 수요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여 향후 5~7년 간 고정자산 투자를 2016~2020년 대비 3배로 늘려 공급량을 대폭 증가해야 하며 이에 당사는 600억 루블 규모의 시설을 구축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3개 공장(압연 역청 재료 생산, 압출 폴리스틸렌 폼 XPS 단열재, 2차 폴리머 가공)을 동시에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북서 지역에 암석 기반 단열재 생산 공장 건설을 논의하고 있다. 사라토프 지역에는 소프트 비투멘 지붕 타일, 정면 타일 생산공장을 새롭게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함
- 발레리 포코르냐크(Valery Pokorniyak) 알탄(Altan)사의 대표는 “5년 동안 파스타 면 시장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구매 가격의 상승 때문이다. 원자재 및 소모품 가격의 상승으로 많은 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많은 기업이 개발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2019년~2020년 초, 생산량 증가를 위해 6억 루블 이상을 투자해 6번째 생산설비를 투자했다. 2020년 러시아 기업은 약 150만 톤의 파스타 면을 생산했으며, 이는 2019년보다 5.5% 증가한 수치이나 2021년 5월 2020년 5월에 비해 10.2% 감소한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는 이 식품이 저장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2020년 4월 많은 사람들이 향후 사용을 위해 미리 구매했으며, 배달의 확산으로 요리가 완료된 음식을 더 많이 구매하게 되어 크게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매출 부진의 이유를 설명함

## ■ 골판지에서 알루미늄까지 : 점점 가격이 더 높아지는 이유

- 전년도 해당 월 대비 러시아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5월 6%에서 6월 6.5%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보다

더 가속화되었고, 5월 연간 8.6%에서 6월 8.8%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

그림 9. 인플레이션 가속 양상



자료: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블라디미르 베소소프 고등 경제대학 개발연구소의 산업 및 무역 부서장 가공

그림 10. 기업 및 개인 대출 증가



자료: 러시아 중앙 은행

- 블라디미르 베소노프(Vladimir Bessonov)는 “현재 주요 문제는 원자재 가격상승인데, 원재료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 세계적 규모의 정부 지원 조치로, 미국과 유럽이 경제에 많은 돈을 지원해 교역을 통해 상품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2021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9년, 2020년보다 높아질 것이며 2021년 연말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은 6~8%로 예상한다.” 는 전망을 내 놓았음
- 안드레이 베레즈노이(Andrey Berezhnoy) 랄프 링거(Ralf Ringer)社의 CEO는 “작년의 경우 모든 제조업체가 생산을 늦추고 재고를 줄여, 가령 제조업체는 고객에게서 주문을 받으면

배송될 수 있도록 만들어 선적을 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했다면, 지금은 장비 주문생산을 기다려야 한다. 당사의 주요 소재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비용이 크게 인상되었다. 당사가 인상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듯이 가죽 제조업체도 증가하는 모든 비용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품의 가격은 오를 것이고 값이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이동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발레리 포코르냐크(Valery Pokorniyak)는 “밀가루 박력분의 가격이 톤당 17.5 루블에서 30~32루블로 70~90% 인상되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밀가루 가격이 거의 40% 올랐으며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포장재 가격이 25~30% 인상되었다(유럽과 미국은 40~50% 인상). 2021년 하반기 포장재 공급업체는 계속해서 3~5% 가격 인상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컨테이너 부족, 컨테이너 10배 가격 증가, 배송 시간 연장 등 글로벌 물류의 문제이다. 러시아 내엔 식품 외박스가 외국산(중국, 핀란드)이며 자체 골판지 생산 업체가 없다.”고 말함
- 세르게이 코렌스니코프(Sergey Kolesnikov)는 “원재료 가격이 전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고분자 제품(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폴리프로필렌)이 매우 부족하며, 폴리에틸렌 가격은 2배, 폴리스타이렌 가격은 2~2.5배, 아스팔트는 2.5배 상승했다. 폴리머 단열재 비용은 원자재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면 광물성 단열재는 에너지 운반체(코크스), 결합수지, 포장재 및 관련 서비스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6~8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새로운 원자재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그 힘을 유리하게 작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고 언급함
- 데니스 크루비트소프(Denis Kryvtsov)는 “가격의 주요 인상은 금속(강철 3배, 알루미늄 2배), 합판 가격은 3배, 화학약품, 페인트, 접착제용 폴리우레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가격상승과 함께 자재 부족의 문제가 크며 금속의 경우 성장이 정체될 수 있지만, 합판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함
- 미하일 리프트십(Michaili Lifshits)은 터빈 비용 내 금속 비용은 최대 50%, 열교환 장비 비용은 최대 70%이며 연초부터 다양한 유형의 금속 비용이 증가했으며 30~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금속 가격상승을 고려하면 당사 제품 가격이 최소 25% 이상 인상되어야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프로젝트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상황을 설명함.
- 최종 제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종 가격상승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곧 가격을 인상하거나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것임. 알렉산더 시로프(Alexander Shirov)는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물가지수(CPI)의 격차가 13%에 이르렀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견인하는 요인은 식품, 자동차 연료, 주택 및 공동 서비스였는데, 비식품 제품의 요인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음

- 최근 몇 달간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투자 상품 생산이 감소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향후 점점 더 비싸지는 원자재가 전체 산업 생산에 제약을 줄 수 있음

## ■ 2022년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성장률 2%대로 둔화

- 수입 인플레이션 문제는 루블 환율의 강화로 부분적 해결이 가능하지만, 러시아 재무부의 예산 규정 및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입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 임금 인상을 통해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기업 대표 RAS 경제 예측 연구원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1/3이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음. Gaider Institute의 러시아 경제 상황 모니터링에서도 이 문제가 드러나는데,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생산량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1위 인력 부족(26%), 2위 장비 부족(13%)을 언급함
- 발레리 미로노프(Valery Mironov)는 “그럼에도 러시아 경제에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는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효과로 9월부터 월 0.5% 경제성장을 예상하며 연말 5% 정도 산업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임금에 의해 경제는 움직이며 부유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소비경향이 높으므로 GDP 성장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함
- 드미트리 벨루소프(Dmitry Belousov)는 “세계 시장이 회복한다는 가정 아래, 호황 산업과 인구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희망을 주었으나 2022년부터 긴축통화 정책과 재정 건실화로 성장률이 2022년에는 최대 1.5%~2%로 둔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모스크바의 서비스 부문 준 봉쇄와 함께 기준금리의 인상은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 러시아 경제가 아주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 참고자료

a) <https://expert.ru/expert/2021/29/sdelat-samim-a-ne-zhdat-konteyner/?ny>  
(2021.7.23. 검색)



## 주요 통계



표. 2021년 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3.03 (+9.3%)**	6.25 (-5.4%)	19.28	+3.9%
북극해	2.42 (+0.7%)	5.16 (-2.7%)	7.58	-1.7%
발트해	10.18 (+6.4%)	11.02 (-10.7%)	21.2	-3.4%
아조프-흑해	9.64 (+11.3%)	13.24 (-3.6%)	22.88	+2.2%
카스피해	0.2 (-30.2%)	0.41 (+1.4%)	0.61	-12.2%
합계	35.43 (+8.0%)	36.12 (-6.0%)	71.55	+0.3%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www.alta.ru/logistics\\_news/81902/\(2021.7.14. 검색\)](https://www.alta.ru/logistics_news/81902/(2021.7.1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5503/\(2021.7.14. 검색\)](https://portnews.ru/news/315503/(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272,874.7	80,039.2	220.6	38.8	273,095.3	80,077.9
25-27	광물 제품	1,243,473.0	33,684.1	347.6	0	1,243,820.7	33,684.1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104,647.2	33,139.7	339.7	0	1,104,986.9	33,139.7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3,970.9	90,992.8	324.9	21.7	4,295.8	91,014.5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21.3	1,727.1	0	1.5	21.3	1,728.6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6,348.1	9,165.0	265.5	0	96,613.7	9,165.0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247.7	27,324.9	0.3	37.5	248.1	27,362.5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2,071.0	82,510.9	97.0	929.2	52,168	83,440.1
84-90	기계류	73,280.6	421,700.6	116.7	50.1	73,397.3	421,807
68-71, 91-97	기타	201,712.5	54,468.0	769.6	80.7	202,482.3	54,548.7
	합계	1,944,000.0	801,702.4	2,142.3	1,159.5	1,946,142.2	802,861.9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



표. 2021년 5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190	218.7	-	-	-	-	-	-	190	218.7	-	-
0303	냉동수산물	73,852.9	99,954.5	1,698	5,144.4	0	0.0	-	-	73,853.0	99,954.5	1,698	5,144.4
03031	연어	0	7.2	-	-	0	0.0	-	-	0.0	7.2	-	-
030331	광어	257	855.4	-	-	-	-	-	-	257	855.4	-	-
030332	가자미	156	171.9	-	-	-	-	-	-	156	171.9	-	-
030339	기타 넙치류	788	648.8	-	-	-	-	-	-	788	648.8	-	-
030351	청어	5,139	3,472.4	-	-	0	0.0	-	-	5,139	3,472.4	-	-
030363	대구	5,379	12,000.8	-	-	-	-	-	-	5,379	12,000.8	-	-
03036 70000	명태	55,038	58,037.4	-	-	0	0.0	-	-	55,038	58,037.4	-	-
03038 93	농어	13	38.1	-	-	-	-	-	-	13	38.1	-	-
030391	알류	4,536	22,621.9	-	-	0	0.0	-	-	4,536.5	22,622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96	402.6	-	-	-	-	-	-	296	402.6	-	-
0304	생선 필레	7,182	21,605.6	82	420.9	0	0.0	-	-	7,182	21,605.6	82	420.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	0.1	104	669.4	-	-	-	-	0.0	0.1	104	669.4
0306	갑각류	5,599	134,574.5	57	389.2	-	-	-	-	5,599	134,574.5	57	389.2
030614, 030633, 030693	게	5,145	130,487.3	-	-	-	-	-	-	5,145.0	130,487.3	-	-
0307	조개류	498	1,254	-	-	0	0.0	-	-	499	1,254	-	-
03072	가리비	201	432.6	-	-	-	-	-	-	201	432.6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119	355.3	61	300.6	0	0.0	-	-	119	355.3	61	300.6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747	2,437.3	-	-	-	-	-	-	747	2,437.3	-	-
03081	해삼	16	43.1	-	-	-	-	-	-	16	43.1	-	-
03082	성게	731	2,392.0	-	-	-	-	-	-	731.0	2,392.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7.14. 검색))